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소비쿠폰	2,978	불법 주정차	88,572	생활불편
2	위드코로나	2,335	장애인 전용구역	13,648	생활불편
3	NDC	1,451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5,113	정책관련
4	KT보상	1,277	어린이 보호구역	5,055	생활불편
5	탄소중립	1,111	경기도 구리시	4,177	지역이슈
6	일상회복	837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	3,967	지역이슈
7	할러윈	746	기지이전 부지	3,751	지역이슈
8	FA-50수출	671	평내호평 하수처리장	3,749	지역이슈
9	COP26	575	물류센터 유치	3,747	지역이슈
10	방역패스	521	동탄역 지상공원	2,675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 민원 포함(11.1~11.7.)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10.28.~11.3.)

민원 동향

- 11월 1주차 민원은 225,578건(일평균 32,225건)으로 지난 주(274,163건) 대비 17.7% 감소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대구(27.3%), 대전(18.3%)이 다소 증가, 경기(37.6%), 충남(10.4%), 충북(7.0%) 등은 감소
- 분야별로는 경기도 화성시 생활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등 환경 및 도시 분야가 증가한 반면 교육, 재정 분야 감소



주요 민원

□ 위드 코로나 시행과 관련 민원 (432건)

- 11월 1일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과 관련하여 시설물 이용가능 시간 문의, 마스크 미착용 가능 여부 확인, 입국시 자가 격리 기준 문의 등 민원 발생

※ 관련 민원은 전주 대비 46% 증가



이용시설 거리두기 기본 방향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 전환*	단계적 거리두기 기본방향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사적모임 인원제한 수도권 10인,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12명
	지역별·단계별 수칙체계 해제, 전국적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위험도 높은 시설	시설 종류	주요 방향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유흥시설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도입	24시 까지	시간제한 없음	영업시간 제한 - 식당·카페 등 24시간 - 유흥시설, 콜라텍 등은 자정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1차 운동속도, 사위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	시간제한 없음	
위험도 낮은 시설	식당·카페	미접종자 4인까지 허용	2차 시설내 취식 가능	시간제한 없음	백신패스 시행 - 감염위험시설(노래연습장·목욕탕·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경마·경륜·카지노) 입장 -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면회
	영화관, 스테디 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	방역 완화	시간제한 없음	시설내 취식 가능	행사·집회 인원 - 미접종자 포함할 경우 99명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 시 499명) - 결혼식, 전시·박람회 등 미접종자 포함 100명 이상

- 일상회복 1단계 시행 시점인 현재 전 국민 백신 접종율은 75%를 넘었습니다. 일상회복 1단계 조치로 스포츠 관람 시설 이용자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데 수원시 체육시설은 관외 이용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조치를 시정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 경기도 수원시)
-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마스크 미착용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PC방의 경우 이용자들의 10명 중 6명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고, 감염자가 줄지 않고 있음에도 이외 밀폐된 영업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의 철저한 감독 바랍니다. (11.4. 경상남도 양산시)
- **검토요청** 일상회복 1단계 시행에도 음식점은 거리두기 인원이 4m² 당 1명으로 시행전과 동일 합니다. 마트, 백화점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제한이 없고, 결혼식장은 상시 마스크착용을 하고 있음에도 면적제한을 두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11.4. 보건복지부)

□ 서울시 양천구 쓰레기소각장 폐쇄 요구 (657건)

- 서울시 양천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일부가 음식물, 비닐 등 불량쓰레기로 소각시 인체에 유해한 연기를 배출할 수 있어 불량쓰레기 반입금지 요청과 내구 연한이 지난 소각장 폐쇄 요청

〈쓰레기 소각장 위치도〉



- 최근 주민들이 반입되는 쓰레기차를 검사해보니, 불량쓰레기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쓰레기차를 발견하였습니다. 불량쓰레기가 많이 소각된다는 것은 많은 유해물질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서울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 서울특별시)
- 내구 연한을 한참 넘긴 양천 쓰레기소각장을 폐쇄해 주세요. 35년째 가동으로 시설이 낙후되어 폐기처분해야 마땅한 소각장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은 소각장과 초인접한 거리의 주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서울시의 결단을 요청 드립니다. (11.5. 서울특별시)

□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 관련 문의 (119건)

- 코로나 백신 중 얀센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 사전예약이 10월 28일부터 시작되면서 사전예약 방법, 시스템 장애 신고, 백신의 안전성 문의 등 민원 발생

- 얀센 추가접종 대상자입니다. 사전예약을 해놓은 상태이나 더 빨리 맞고 싶어 잔여백신 예약을 하려하는데 시스템에서 접종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빠른 확인 및 시스템 개선요청 드립니다. (11.1. 질병관리청)
- 얀센 접종자입니다. 부스터샷을 맞으려고 하는데 몇 번 접종이 필요한가요. 모 더나, 화이자는 기본적으로 2회를 맞는데 부스터 샷의 경우도 2회 모두 맞아야 하는지 1회만 맞아야 하는지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11.1. 질병관리청)
- 현재 해외 근무중으로 국내에서 7월에 얀센 백신을 접종 하였습니다. 내년 2월에 귀국 예정으로 귀국과 동시에 부스터 샷을 접종하고 싶은데 시스템에서는 '22년에 예약은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부스터 샷 접종이 불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11.1. 질병관리청)

민원 예보(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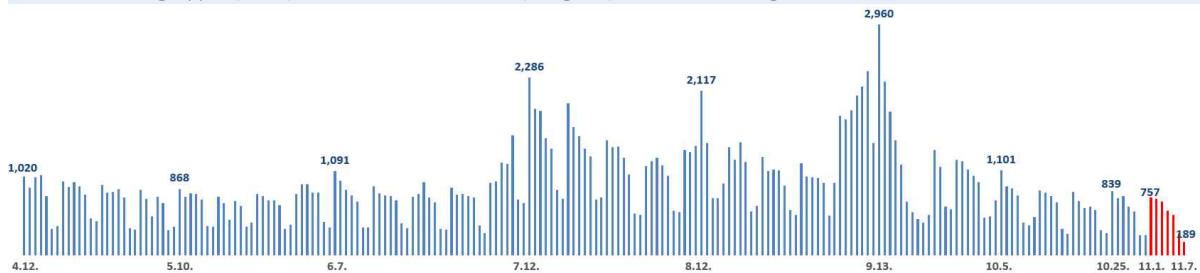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불편사항

2020. 2. 12. | 3단계(심각)

보건복지부 등

※ 20.2.21. 예보발령 대상기관 확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외 지자체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 구제 대책 및 어린이 보육, 학생 교육 대책 요구, 감염 방지를 위한 유흥업장 행정조치나 모임 제한 조치 요구, 긴급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문의 등의 민원 발생



▶ 이번 주 민원은 3,805건으로 전주(4,130)보다 7.9% 감소, 일평균 544건



□ 전주 대비 상승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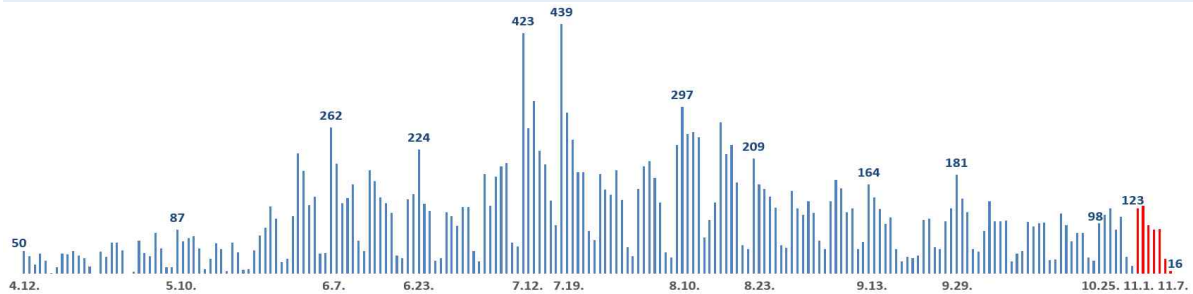
자가격리, 백신 접종
미접종자, PCR검사 등

-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이의] 자녀가 자가격리 중인데 곧 해제될 예정입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를 받았는데, 제가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기관에 근무하여 신청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보조금을 받는 기관이지만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유급휴가 사용이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부분은 회사 사정이고 제가 출근을 했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해되지 않습니다. (11.2. 보건복지부)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가족 구성원들이 자가격리로 인해 생활이 곤란하게 될 경우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기업에 근무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이 되지 않고,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모두 지급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똑같이 힘듭니다.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자가격리 기간동안 아무런 수입이 없는 사람들로 규정하여 바꾸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종사자도 똑같이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1.5. 보건복지부)
- [PCR검사 유료화 반대] 내년 초부터 코로나 검사를 유료화할 수도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말은 결국 검사비용을 내고 싶지 않으면 백신을 강제로 맞아야 한다는 것이냐 다름없는 거지요? 수업이 있을 때마다 나가고 공공기관 방문해야 할 일도 자주 있는데, 매번 코로나 음성증명서를 내야 한다면 한 달에 몇십만 원에 달하는 코로나 검사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리 방역 조치라지만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11.1. 보건복지부)

2021. 6. 16. | 2단계(주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접종 후 다양한 증상에 대한 궁금증, 백신접종 예약방법, 접종일정, 접종대상 누락 이의, 접종기준에 대한 문의 및 이의 등 민원 발생



▶ 이번 주 민원은 574건으로 지난주(594)보다 3.4% 감소, 일평균 82건



□ 주요 키워드

PCR검사, 실내체육시설, 기저질환, 아나필락시스 등

- [검토요청] 백신 미접종자 실내체육시설 등 이용 제한 이의] 코로나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면서 멀쩡히 잘 다니던 수영장인데 백신 미접종자로 분류되면서 다니기 까다로워졌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닌데 왜 차별합니까? 아니면 당첨제로 등록이 어려운 체육시설은 유예기간을 길게 두어서 자격이 박탈당하게 하지는 말아야죠. 백신 안 맞은 사람도 세금 낸 국민입니다. (11.1. 보건복지부)
-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시킨대로 문 닫으라면 닫고 시간 줄이라면 단축해 가면서 대출 등으로 운영해오고 있는데 이젠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백신패스를 적용하라고 하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기존 회원의 환불과 연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식당에서 밥은 먹어도 되고, 마스크 끼고 운동은 안 된다는 법이 있나요? 왜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정책으로 일부 업종을 죽이려 하는지 그에 대한 손실 보상 및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11.5. 보건복지부)
- [기저질환자 백신패스 예외적용 요청]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입원 치료한 적이 있어 코로나 백신 접종 전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11월에 위드코로나로 접어들면서 백신 패스 도입으로 백신 미접종 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백신 미접종자도 백신패스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1.1. 질병관리청)
- 백신 알려지가 있어 다른 백신을 맞고도 호흡곤란과 열이 동반되었으며 응급실을 한 달 동안 다닐 정도로 끔찍한 나날을 보냈기에 백신을 맞으면 안 됩니다. 항생제와 약물, 음식 아나필락시스 알러지 반응이 있는 기저질환자 등은 백신패스 예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5. 질병관리청)

알림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일상회복 1단계에 따른 음식점 인원 제한 해제 요청	1AA-2111-0137708	보건복지부
5P	백신 미접종자 실내 체육시설 등 이용 제한 이의	1AA-2111-0018120 1AA-2111-0173390	보건복지부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